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race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도여 다 함께(찬29/새29장)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권조원 장로 2부/김건성 장로 3부/김도형 집사 4부/김진형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기도문(Albert Hay Malotte 작곡)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사도행전(Acts) 5:27-42.....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2:1-26

말씀 Message 1, 2, 3부..... Rev. Jame Suh **서동민 목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2): 하나님의 사람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축도 Benediction Rev. James Suh **서동민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기본에 담긴 힘

The Power of the Basics



서동민 목사 / Rev. James Suh

가을이 올 때마다 기대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새로운 미식축구 시즌의 시작입니다. 풋볼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단순합니다. 좋은 선수, 훌륭한 코치, 그리고 하나 된 팀이 필요할 뿐입니다. 역대 최고의 코치 중 한 명인 빈스 롬바르디는 매 시즌이 시작할 때마다 공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풋볼입니다." 그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위대함은 기본기를 완벽히 다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는 매일같이 블로킹하고, 태클하고, 패스하는 단순한 기본을 탁월하게 해낼 때 팀이 승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리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영서는 성공한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산업과 전략은 달랐지만 모든 성공 기업이 공유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본을 대부분의 시간에 충실히 잘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영적 삶을 세우는 데 필요한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우리는 가장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언론은 '무교인 증가 현상(the rise of the nones)'을 떠들었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요즘 젊은 세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자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연령대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신앙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세대의 출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젊고 열정적인 세대는 조용히 부흥을 이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잊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징표입니다. 불확실성과 분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롬바르디가 팀에 가르쳤던 교훈이자, 기업들이 증명해 온 원리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진리입니다. 기본을 잘하라.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고, 자라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이루실 것입니다.

Every time fall comes around, there are many things I look forward to but in particular is the start to a new football season. As complex as the sport may seem to be, like all sports it's quite simple. It requires, great players, great coaching, and an excellent team. Among one of football's greatest coach, Vince Lombardi, he was known to have beginning every season by holding up a ball and saying, "Gentlemen, this is a football." His point was simple: greatness comes from mastering the basics and he taught that teams won because they blocked, tackled, and passed with excellence—day after day. The same is said and proven in business. There is a certain business book that analyzed why certain companies succeed but the striking takeaway was this: despite their varied industries and approaches, all successful companies had one thing in common—they "do the basics well, most of the time."

When it comes to church, I wonder then what are the basics? How can this be applicable in our spiritual walk? It would seem that the basics are Prayer, Scripture, worship, and loving others. Yes it is not flashy, but they certainly would seem to be a good foundation of building a strong spiritual life – especially for our next generation. Now consider what is happening in the church today. For so long, we feared that the youngest generations were slipping away. Headlines declared the "rise of the nones," and many of us prayed with heavy hearts for our next generation. But now—something remarkable is happening. Fresh research from Barna show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are attending church more often than any other generation. Yes, you read that right. The very age groups many thought were lost are showing up nearly twice a month, seeking worship, community, and faith. Meanwhile, older generations have slowed in their attendance while passed but we are seeing the young and restless leading a quiet resurgence. This is no small shift. It is a sign that God has not forgotten this generation. In a world of uncertainty, division, and noise, young adults are hungering for what is eternal. They are finding their way back—not to religion as duty, but to Christ as life. The way forward is not complicated. It is the same lesson Lombardi taught his team, the same principle businesses have proven, the same truth the Scriptures remind us: do the basics well. Let us be a church that is learning, sharing, worshipping, and growing. When we return to the fundamentals, God will do the rest.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서동민 목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행전 5:27-42

1.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도들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울려옵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 안전, 혹은 인정 욕구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권위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5:29)

2.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용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속에 그 이야기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지 못할 때,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합니까? (5:30-32)

3.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나에게 순종 때문에 어려움이나 거절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까? 이번 주, 작은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5:41-42)

4. 사람들의 인정, 성공, 안전 등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권위가 되지 않도록, 나는 어떤 영역을 점검해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야기 안에서 담대하게 선택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합니까?

5. 이번 주 나는 '듣고, 살아내고, 기쁨으로 뛰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 포인트별로 한 가지 행동을 정하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십시오.

적용하기



■ 적용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사역팀 소개
주차

섬김 훈련은 주차장에서부터



"그(예수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종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수집사 직분을 받으시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주차사역입니다.

요즘같이 무덥고 햇살이 따가운 한여름에는 밖에서 있기조차 힘들지만, 우리 주차사역팀은 매주 받는 은혜의 말씀을 원동력 삼아 기쁨을 잃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턱없이 적은 인원(8명)이지만, 감사하게도 자원해 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주차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격려와 위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당 주차장은 약 300여 대만 주차할 수 있어서, 새가족, 장애인, 80세 이상 시니어, 임산부, 영아 2명 이상을 둔 가정, 환우, 소망부 등 비전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모든 베델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약

20%)로 접어들어 80세 이상 시니어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교회에서 본당 주차를 허용해 주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1부, 2부 예배 후 교회에서 셀모임을 하시거나, 예배 후에도 계속 남아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증을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명시된 시간 안에서만 주차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차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거나 짜증이 나시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김주홍 집사

목장 소개
조이(JOY)

딱 맞는 신발



제 남편은 두 살에 미국에 와서 거의 미국인이거나 다름없지만, 여전히 예의와 존중, 공동체 속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정서를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열일곱 살에 이민 온 1.5세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지만, 아직도 한국 음식이 최애이고 K-드라마를 즐기며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가끔은 너무 '우리'를 강조하는 한국 정서가 조금은 부담스러워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하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베델의 조이(JOY)

공동체는 정말 딱 맞는 신발 같습니다. '정', 그리고 '우리' 중심의 한국 정서와 자유로운 개인 중심의 미국 정서에 낯선 세대, 그 중간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우리 같은 세대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서로 다른 배경과 정서를 가진 분들이 조이에 속해 계십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어린 나이에 오신 분,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셨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 미국분과 결혼하신 분, 한국분이 아닌 분 등, 각기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한국 정서의 따뜻함과 미국 정서의 자유로움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조이 공동체는 매주 2부, 3부 예배 후 예배당 앞 노란 지붕 아래에서 만납니다. 달콤한 다과

와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모두를 아우르는 이곳을 저는 '천국 정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낮설지 않습니다. 1세들의 정이 넘치고, 1.5세와 2세들의 자유로움이 존중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는 새로운 정서가 자리합니다. 어쩌면 조이는 앞으로 몰려올 2세들에게 1세들과 연결되는 천국의 다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이는 1세들이 바라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그들이 편안해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 배우자는 미국 정서인데, 나는 한국 정서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께도 잘 맞는 곳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하는 외로움이 있으시다면, 조이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는 경험을 나누시길 초대합니다.

Sammie Lee 집사

사역 후기
큐티인 포럼

BACK TO BASICS!



'2025 미주 큐티인 포럼'과 '미주 큐티엠 이사회'가 지난 9월 8일(월)부터 9월 9일(화)까지 베델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과 이사회는 다음 3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은 <큐티인>을 교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 담임목회자들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동부, 중부, 북가주 포함, 미주 전역의 14개 교회를 대표하는 26명의 목회진이 한 자리에 모여, 큐티 운동의 비전과 극복과정을 서로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큐티인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언어와 세대를 뛰어넘어 다시 회복되어 가는 베델교회

의 사례와 간증(김한요 목사), 김양재 목사의 큐티 목회에 대한 진솔한 경험담, 큐티인 정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ANC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 등의 나눔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번 포럼은 '미주 큐티엠(QTM America)'이 설립된 지 3년 만에 주관한 첫 대외행사였습니다. 우리교회는 2021년 10월, 목상교재를 <큐티인>으로 전환하였고, 이듬해 2022년 7월, '온 세대를 아우르는 목상 운동의 전세계 확산'이라는 공동비전을 품고 한국 우리들교회와 협력하여 '미주 큐티엠'(NPO)을 설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큐티인> 영문본 번역, 문서 보급, 큐티운동 확산 등의 임무를 감당해온 미주 큐티엠에게 올해의 포럼과 이사회는 지난 3년간의 초창기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 하는, 평가와 성장의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은 베델교회의 큐티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부서와 장년사역에 걸쳐 진행중인 모범적 적용사례와 간증을 정리하고 나누면서, 오픈된 분위기 가운데 진솔한 평가와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의 경험을 나누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미 <아침메세지>, <울림>, <말씀플러스>, <제자훈련>, 셀 안에서 <큐티나눔> 등 여러면에서 큐티인의 목상과 나눔이 사역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를 심분 활용하시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큐티인>을 통한 복음 중심의 큐티운동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넘어 선교지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배홍수 목사

교회학교
영아부

아가들도 예배드려요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있는 영아부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부터 생후 17개월 내외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매주일 본당 오른쪽 크라이름에서 오전 9시, 11시 예배에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찬양 선생님과 노래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헌금과 주기도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 25분간의 영아부 예배가 끝나면 본당 쪽 커튼을 걷고, 어른들은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이후 예배에

참여하며, 아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세상에 나와 누워만 있는 신생아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한 살 된 아이들까지, 각자의 소리를 내며 예배합니다. 이 아이들이 매주 나와 예배 순서와 분위기를 알아가고, 큐티 책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영아부는 이렇게 자라날 아이들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영아부의 한 가지 특징이라면, 부서 아이들의 생일이 모두 첫돌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이들,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훌쩍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자체로도 대견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아가는 모습으로 자라나길 기도하게 됩니다.

출산 후 육아와 회복으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거리감이 생기기 쉬운 시기에 교회를 향한 부모님의 발걸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아이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함께 믿음을 키워 나갈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은 또 다른 축복입니다.

영아부는 전도사님과 9명의 선생님, 6명의 학생 TA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챙겨야 하는 부서의 특성상, 점차 늘어나는 아이들로 인해 보살핌을 위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위치가 본당과 가까운 크라이름이어서 아이들의 예배 소리가 대예배 중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공간임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용훈 집사

교회학교
OICOF

Go Back,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새 학기를 여는 설렘 속에 열린 OICOF(One in Christ on Friday) 집회는 예배 전부터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코트야드에는 푸드트럭의 향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미니 기차, 바운싱 하우스, 레이저 태그, 포토존, 아이스크림 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어 온 세대가 함께 즐겁고 따뜻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예배를 향한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는 귀한 예비 찬양과도 같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며 울려 퍼진 'Jesus is Alive' 찬양에서는 온유 목장과 은혜 목장의 부모 세대가 강단 위에서 울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강단 위와 아래가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한 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이어진 C2C 팀의 열정적인 힙합 퍼포먼스는 예배당을 뜨거운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은 Cornerstone Christian School 교장이신 Dr. Jason Lee 목사님께서 'The Beauty of Going Back'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을 통해 "Go back"은 단순히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자리로 돌아가라는 은

혜의 초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가듯, 우리 또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무엇을 하느냐(What do I do)'가 아니라 '누구인가(Who am I)'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I do so I can be'가 아닌 'I am, so I do'라는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진행된 추첨 행사, 특히 손흥민 선수 경기 티켓을 포함한 풍성한 선물은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더하며,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와 감사를 더욱 깊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안정선 권사

교회학교
썸머 큐티인 챌린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

The Summer QTin Challenge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것이 큐티였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매일 꾸준히 큐티를 했어요. 이렇게 매일 꾸준히 큐티를 하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어요. 또한, 큐티 책의 문제에 답을 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Challenge는 끝났지만, 지금도 매일 꾸준히 큐티 하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김민서(3학년)

The Summer QTin Challenge was really fun! I was glad to learn more about God each day. My favorite part was playing games and doing crafts. I liked how every day had a new Bible story. My mom and I did QT at the same time, and it made us feel strongly connected through God. This

summer I went to Korea before the challenge started, but I still packed my QTin book, because by doing QTin everyday, QTin feels like part of my daily life routine.

김아영(3학년)

A challenge I faced during the Summer QTin Challenge was applying the message to my life. I would often read the passage and then go about my day, forgetting what I had read. Through QTin, I learned that God doesn't have favorites but chooses the humble to lead His people. In Judges 7:19-22, all God needed to defeat the Midianites was to make noise. This taught me that if you trust in God, He will help you no matter how crazy it seems.

Christine Kim(5학년)

The Summer QTin Challenge was a difficult challenge. We needed to write our QTs every day for 1 and a half months and post it on the Kakao chat. This really brought me closer to God. During this time, one important message from the QTin was this verse.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powerfully upon Samuel. He tore the lion apart with his bare hands." This emphasis that you can do anything with the Lord. This is what God taught me through the QTin Summer Challenge.

Gionni Choi(5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재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금다식 사역 봉사자 모집

새 학기를 맞이하는 베델의 꿈나무들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 받아 그리스도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말씀과 찬양,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매주 금요일 정성껏 준비하고 제공하는 금다식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금다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금요일마다 베델교회의 금쪽같은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교회학교 어와나, BYM 중등부 · 고등부, CIM, 예삼 청년부까지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PTA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250-300인분의 식사와 간식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므로,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금다식 사역에 함께 참여하실 봉사자분들을 찾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8시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배부하며,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함께 섬겨 주실 분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모여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실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바랍니다.

- ▶ 기간: 9월 12일(금)-11월 21일(금)
- ▶ 일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7시
- ▶ 장소: 유년부실
- ▶ 문의: 박성남 집사 (949)697-8531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9,10월)	9/21: ①부-김광영	②부-김근수	③부-김병수	④부-나승채
	9/28: ①부-김문경	②부-김백열	③부-김동건	④부-신영록
	10/5: ①부-김병인	②부-김문식	③부-김성귀	④부-이진호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9/20: 김동균	9/27: 김양래	10/4: 김원용	10/11: 정봉화
----------------------	-----------	-----------	-----------	------------

강단꽃(9,10월) | 9/14: 김인권, 성홍숙 9/21: 김경희, 선상균, 이유경 9/28: 윤태경, 정윤경 10/5: 엄기완, 윤주원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박규희 다음주 | 의사-윤현돈(혈액내과), 간호사-장수잔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김한요 담임목사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9월 첫 주부터 3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는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기적'을 주제로 하여 공관복음의 본문으로 진행되는 이 말씀의 잔치, 세 번째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9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말씀: 김한요 담임 목사, 기적과 기도(마가복음 1:29-30)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BYM 중등부 금요 프로그램** 9월 19일부터 'Armor of God' 주제로 금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찬양과 말씀, 소그룹을 통해 모든 중등부가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을 학기: 9월 19일(금)-12월 12일(금) 저녁 7시-9시
 등록 기간/등록비: 8월 24일(주일)-9월 7일(주일), \$60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설문조사** 청빙위원회에서는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쿼알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기간: 9월 7일(주일) - 9월 21일(주일)



<한글> <영문>

◆ **101차 베델동산 모집** 101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4일(금)-11월 16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석승진 집사 (949) 232-0872



<참가자> <봉사자>

◆ **제12차 힐링캠프 미국 봉사자 모집** 힐링캠프는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낮은 땅에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시: 11월 11일(화)-13일(목)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
 장소: 여의도침례교회 드림센터(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64)
 신청방법: QR코드로 신청



◆ **예살 B&B 캠퍼스 전도 및 교회 초청 행사** 가을 학기 교회 인근 대학에 새롭게 유입될 신입생들을 전도, 초청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뿌릴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의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캠퍼스 전도: 9월 22일(월), 25일(목), 26일(금)
 초청 행사: 9월 27일(주일) 오후 5시, 교회 체육관
 문의: 공병주 전도사 (213)660-9477

◆ **초등부 창조과학 현장학습 등록 및 안내** 초등부가 샌디에고에 위치한 Creation & Earth Museum 현장 학습합니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 역사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상: 4-5학년
 날짜: 9월 20일(토) 헵시바 이후
 문의: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 모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기니비사우 단기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참여 지역: 의료 지역, 복음 전도 지역, 어린이 지역 등
 선교 기간: 12월 3일(수) - 11일(목)
 문의: 박성남 집사 (949) 697-8531

◆ 목회자 동성

- 예산재정을 섬기고 있는 이형석 전도사가 9월 9일(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 본 교회에서 섬기던 김홍식 목사의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9월 14일(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곽호정/김기연 성도님 가정에 딸 테리(Terry)가 지난 2일(화)에 태어났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우간다 단기선교가 9월 10일(수)-20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정연제 집사님(장윤희 권사의 모친, 장유성 집사의 장모)께서 9월 7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조대익 집사(조정자 권사의 남편)께서 9월 11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For the Name of Jesus Acts 5:27–42

1. The apostles' declaration that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still speaks to us today. In my life, am I giving more weight to other authorities over God because of people's opinions, the desire for safety, or the craving for recognition? (5:29)

2. The story of the risen Jesus became the source of boldness and courage for the disciples. Do my choices and decisions truly reflect the influence of that story? When I fail to center my life on the gospel story, what causes me to waver? (5:30–32)

3. The apostles rejoiced even as they suffered for the sake of God. When obedience has brought me hardship or rejection, have I ever received it with joy? This week, what is one way I can glorify God in the midst of small challenges? (5:41–42)

4. What areas of my life need to be examined so that people's approval, success, or safety do not become the ultimate authority over me? And what practices are necessary for me to make bold choices within God's plan and story?

5. How can I specifically apply a life of "listening, living it out, and leaping with joy" this week? For each point, decide on one concrete action and make a practical plan to carry it out.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